

시론



탁인석 문학칼럼니스트

40년 만에 광주전남이 다시 한집살림으로 돌아오고 있다. 그동안 두 지역은 '한뿌리'였기에 행정분리에도 불편은 없었다. 그러나 그것들을 다시 통합한다는 게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 아닌가 싶다. 광주는 광주대로, 전남은 전남대로 그동안 지향하는 목표나 살림하는 방법이 다른 상태에서 각자의 성장을 거듭해 왔다. 경제 규모가 그 시절과 다르고 정치적 접근방식이나 활동사안들도 다르다. 그래서 통합이라는 고지를 오르기가 말처럼 녹록한 일이 아니라는 것은 쉽게 이해가 된다. 그에 맞춰 누군가는 새 시장이 될 것이고 누군가는 교육감이 될 것이다. 그에 따른 통합 수순이야 절차에 따르겠으나 미래를 새롭게 만든다는 전제하에 고도의 전략과 여론 추이를 살펴 가야 함은 말할 것도 없고 그에 따른 고통 또한 감내해야 한다.

지금 현실은 통합시장 후보군에 이름을 올린 인사들이 정책적 차원에서 심도 있는 검증 과정을 생략한 채, 하나같이 대통령과 가깝다는 말만 무성하고 정치공학적 구조만을 앞세워 우리 지역의 살림을 장악하겠다는 것이다. 더 깊이 들여다볼 것도 없이 전남광주가 어떤 곳인가. 자타를 가리지 않고 문화와 예술이 탁월한 '예향'의 분향이 아닌가. 지금 지구촌의 무대는 K-컬처가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K-컬처로 벌어들이는 1년 수입이 200

'문화시장'에 투표합시다

조를 헤아리다니 여기에서 새로 출발하는 전남광주의 지역적 선택과 과격적으로 달라져야 한다. 케데헌 하나만도 그 열풍이 어느 정도인가는 우리들의 상상을 멀찍이 뛰어넘고 있다.

2025년에 집계된 방한 외국인 관광객이 1천883만 명인데 이는 콘텐츠 과급력이 높아 온 수지로 증명된 결과이다.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세신목욕, 김밥, K-뷰티 등 한국인의 일상을 직접 체험하는 '하이퍼 로컬' 관광 또한 단단히 한몫하고 있다. 이번 BTS 캠페인 공연으로 이른바 '아미'들의 대규모 입국을 이끌어냈다는 데 그로 하여 3월 1-18일 사이 방한 외국인이 110만 명으로 나타났다 단일 공연의 경제적 효과가 1조2천억을 추산하고 있다. 비빔 긴장해야 할 것은 여기인데 정착 전남광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은 단 1명도 없다는 사실이다. 대통령도 최근 관광전략회의에서 "K-컬처의 폭발적인 에너지가 우리 국민들이 체감하고 성장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본뜻인즉 관광의 지평을 대한민국 전역으로 확장하자는 말씀인 것이다. 대통령도 관광객의 서울 집중현상에 만족하면 관광산업 성장이 한계에 봉착한다고 보는 듯하다. 그러면서 전국 곳곳을 매력적인 콘텐츠로 채울 수 있도록 지역 관광에 혁신적 변화를 주문하고 있지만 정착 우리 지역 통합시장 출마자들의 구호에는 문화예술에 대한 생각이 빠져 있다.

빠졌다기보다 문화에 대한 역량 결핍이 가장 큰 이유가 될지도 모르겠다. 우선 어떻게 해야 당선될까만을 골몰하다 보니 문화융성을 말할 여유 또한 없다는 얘기도. 문득 '문화'에 대한 백범 김구 선생의 말씀이 생각났다. 생사가 불확실한 위급상황에서 조국 독립

립을 최우선으로 한 국가의 백년대계를 문화 강국으로 보았음이다. 독립운동 중에 집필한 헐서와도 같은 절체절명의 기록이 『백범일지』인데 선생은 바로 (나의 소원)에서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겠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으로 '문화'만이 민족의 앞날을 밝힐 유일의 희망이라는 통찰력으로 지도자의 덕목을 강조하신 것이다.

나라가 부강해지면 그에 따라 이웃 나라 침략도 경계할 수 있다고 하신 분도 백범이다. 그러면서 나라가 강해지더라도 그 힘을 "남에게 행복을 주는데" 써야 한다는 혜안 또한 우리가 재차 감탄하는 부분이다. 한국이 먼저 높은 도덕성을 갖춘 문화국가가 돼 물질에 지친 세계 인류에게 정신적인 평안을 주는 나라가 되길 꿈꾸신 것이다. 김구선생 말씀 앞에서 문화 인식이 없는 지도자가 과연 진정한 지도자일까를 거듭 묻게 된다.

그렇다면 전남광주특별시의 최종 목표는 어디서 찾아야 할까. 삶의 질을 제고한 가장 좋은 정책이 문화융성이 아니던가. 이미 보면 전남광주는 문화 자원이 풍부한 특별한 지역임이 분명하고 지도자는 그것들을 놓치지 않고 대대적으로 살려가야 한다. 지금 펼쳐지는 선거판에서 전남광주특별시장 후보들 중 문화융성을 역설하는 후보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알뜰한 득표전략에만 발 빠르게 달려 나갈 뿐, 지역의 백년대계는 도대체가 안중에 없다는 얘기를 수도 있다. 모름지기 전남광주특별시장이라면 문화비전을 최일선에 두고 자신에의 지지를 호소하는 후보가 진정한 지도자라고 필자는 거듭 생각한다. 강조컨대 나는 그 후보에게 표를 찍겠다.

社說

다자 경쟁구도 통합교육감 선거에도 시도민 관심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 선거 열기도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해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이경선 광주시교육감은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하는 수도권 1극 체제 극복과 국가균형성장의 흐름 속에서 교육통합을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은 4월 중순 예비후보 등록할 예정이다. 사무실은 광주에 먼저 두고 전남의 핵심 권역을 나눠서 공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모두 8명이 도전하고 있다. 시·도교육감 외에 강숙영 전 전남교육청 장학관, 고두갑 목포대 교수, 김해룡 전 여수교육지원청 교육장, 장관호 전 전교조 전남지부장, 정성홍 전 전교조 광주지부장, 최대욱 전 한국교총 부회장 등이 이미 예비후보 자격으로 지지세 확산에 열중하고 있다.

현직의 아성에 맞서 단일화도 추진되고 있다. 정성홍 예비후보는 기자회견을 열어 장관호 예비후보 측에 공개 제안을 내놓았다. 정 예비후보는 "통합교육의 비전을 세우는 선거이자 부패하고 무능한 교육 권력을 심판하는 선거가 돼야 한다"고 당위성을 들었다. 이정선 시교육감과 연대를 시사해 주목된다. 이 교육감은 "생각과

뜻이 맞으면 정책 공유와 더 나아가 단일화도 가능하다"며 "시간이 지나면 구체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와 전남이 40년 만에 하나되는 역사적 전환이다. 수도권 집중화로 인한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에 시련이 닥쳐야 한다. 광주 도심의 대규모 학교부터 전남 농산어촌의 소규모 학교까지 아우르는 교육통합을 제대로 완성해야 한다. 지역 성장과 도약의 초석을 탄탄히 다져야 하는 막중한 과업이 부여됐다.

7월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만큼이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이 누구일지 관심이 쏠려 있다.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 구성원들 사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 역량 있는 지도자에 대한 열망은 뜨겁다. 교육 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새시대를 이끌 리더를 뽑아야 한다는 것이다. 치열한 다자 경쟁이 전개되는 가운데 적임자를 골라야 하는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이제 60여일 남았다. 통합교육감 선거전은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미래의 주역, 아이들이 지켜보고 있다. 첫 통합 수장으로 상징성도 크다. 고질병인 네거티브가 아닌 정책 대결의 장이 펼쳐질지 당부한다.

벚꽃 개화 운천저수지 곳곳 쓰레기...시민의식 실종

지난 주말, 광주 대표 벚꽃 명소인 서구 쌍촌동 운천저수지 수변공원은 2만여명이 찾아 북적였다. 평일에도 화사한 봄날의 정취를 만끽하려는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도시철도 2호선 공사로 통제했던 일대가 5년 만에 개방된데다 처음으로 맞는 개화기에 인파가 몰렸다.

문제는 그 이후다. 곳곳에 널린 쓰레기로 몸살을 앓는 것이다. 실제로 본보 취재에 따르면 꽃 나무아래와 수풀 사이로 플라스틱 컵 등 일회용기나 알루미늄 캔, 비닐 무더기가 즐비했다. 중앙의 인공섬으로 연결된 데크 옆 인명구조장비 보관함에도 음식물과 함께 못자리 등 휴대 물품이 방치되고 있다. 주변의 쓰레기통을 가득 채워 인도 구간도 침범했다. 재활용품까지 뒤섞였다. 쓰레기를 내버려둔 채 자리를 뜨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기초 질서의 실종이다. 눈살을 찌푸리게 만든다.

연인과 친구, 가족 단위로, 또 반려동물을 동반해 연신 사진을 찍으며 웃음이 떠나질 않는다. 하지만 이 뿐이다. 성숙한 시민 의식을 바라는 것은 무리였을까. 예상보다 많은 복새통에 행정

당국의 대응도 역부족이다. 관할 구청인 서구는 환경 정비에 나서고 있으나 한계를 보이고 있다. 감당할 수준을 넘어선다. 순찰을 강화했고 화장실 주변에 대용량 종량제 봉투를 임시로 비치했다면서 평소처럼 분리 수거를 해가며 처리하는 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운천저수지는 광주 도심에 위치한 벚꽃이제격이라 할만하다. 꽤 인기가 있다. 지하철과 연결돼 접근성도 뛰어난 편이다. 누구나 편안하게 찾아 즐거운 기분으로 돌아갈 수 있어야 한다. 해서 일회용품을 최대한 자제했으면 한다. 대신 다회용품 사용을 당부한다. 쓰레기를 줄이는 노력에 모두가 동참해야 한다. 평상시에도 가벼운 산책길로 이용되고 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먹거리 등을 챙겨왔다면 반드시 가져가는 게 맞다.

각지에서 꽃축제가 즐기고 산객객들도 늘고 있다. 맞물려 나뭇다리 비양심이 속출,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뒤처리를 잘해야 하는데 아쉽다. 더 이상 꼴불견은 없어야 한다. 무질서는 사라져야 한다.

기고



김승대 남부대학교 기계소재공학과 교수

인공지능(AI), 로봇, 데이터 기술이 산업 전반을 빠르게 재편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수도권을 넘어 광주·전남 지역 산업 전반에도 깊숙이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제조업과 지역 기반 중소기업에서는 기술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인재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자격제도도 이러한 산업 변화 속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국가기술자격은 여전히 기계, 전기, 용접 등 종목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반면 산업 현장은 이미 융합 구조로 전환됐다. 하나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설비 운영뿐만 아니라 센서 활용, 데이터 해석, 공정 제어 등 복합적인 역량이 동시에 요구된다. 그럼에도 자격체계는 분절된 구조를 유지하고 있어 산

AI 시대 자격제도 개편, 어떻게 할 것인가

업과 자격 간 괴리가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괴리는 기업과 개인 모두에게 부담으로 작용한다. 기업은 자격을 취득한 인력을 채용하더라도 다시 교육해야 하고, 개인은 어떤 역량을 준비해야 하는지 명확한 기준을 찾기 어렵다. 자격제도가 인재 양성의 기준으로 기능하지 못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자격제도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

첫째, 종목 중심이 아닌 '산업 중심 자격체계'로 개편해야 한다. 실제 산업 단위를 기준으로 자격을 재구성함으로써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 스마트제조 운영, AI 기반 공정관리, 로봇 유지보수와 같은 형태의 자격이 그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둘째, 모듈형 자격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하나의 자격을 일괄적으로 취득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필요한 역량을 모듈 단위로 나눠 취득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개인은 산업 수요에 맞는 역량을 선택적으로 축적할 수 있으며, 변화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도 지속적인 역량 확장이 가능해진다.

셋째, 자격 운영 전반에 데이터와 AI를 적

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출제, 평가, 난이도 조정 등 전 과정에 데이터 기반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자격의 신뢰성과 운영 효율을 동시에 높일 수 있다.

아울러 자격 교육 취입이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다. 자격 취득이 단순한 시험 준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산업 현장과 연계되고 실제 취업으로 이어질 때 자격제도의 실효성은 비로소 확보된다.

이러한 개편은 단기간에 완성될 수 있는 과제가 아니다. 시범 산업군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현장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는 접근이 필요하다. 분명한 것은 방향이다.

자격제도는 과거 기술을 검증하는 체계를 넘어, 미래 산업을 준비하는 인재 시스템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AI 시대의 경쟁력은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에게서 나온다. 그리고 그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자격 제도다.

이제는 선언을 넘어 실행으로 나아가야 할 때다.

취재수첩



정해선 지역특집부 국장

정치는 망각 위에 세워질 수 없다는 말이 있다. 6·3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본격화되면서 이 문장이 다시 무겁게 다가온다. 후보자들의 전력과 도덕성이 연일 도마 위에 오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공직을 맡겠다는 이들은 자신의 과거에 대해 분명한 해명과 책임 있는 사과로 시민 앞에 서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핵심 쟁점에 대한 충분한 설명보다는 네거티브 공방이나 단편적 검증에 의존하

권력은 기억을 배반할 수 없다

는 모습이 반복되면서 유권자들의 피로감과 불신만 키지고 있다.

민주주의는 흔히 '기억의 정치'라고 불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후보들의 태도는 마치 하늘을 손바닥으로 가리려는 듯하다. 시민을 향한 겸허함보다는 선택적 침묵과 회피로 일관하는 모습은 과연 공적 책임에 대한 인식이 충분한지 되묻게 한다.

특히 지역사회에 누적된 상처와 불신의 기억이 있는 경우라면 문제는 더욱 무겁다. 과거 논란과 갈등에 대한 성찰 없이 다시 권력을 요청하는 행위는 단순한 정치적 도전이 아니라, 공동체의 기억을 외면하는 시도로 비칠 수밖에 없다.

최근 목포 지역에서 감지되는 미묘한 긴장감 역시 이러한 맥락과 무관하지 않다.

과거의 문제를 '지나간 일'로 치부한 채 효율과 충성만을 앞세운다면 정치의 도덕적 기반은 쉽게 무너진다. 민주주의는 기억을 지우는 기술이 아니라, 기억 앞에서 설명하고 책임지는 과정 속에서 유지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민들의 "그때와 지금은 무엇이 달라졌는가"라는 질문에 답하지 못한 채 반복되는 출마 선언은 통합의 메시지가 아니라 또 다른 갈등의 출발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정치가 기억 위에 서는 책임이라면, 그 출발은 반드시 해명과 반성에서 시작돼야 한다.

이번 목포시장 선거는 단순한 인물 경쟁을 넘어, 권력의 윤리와 책임을 다시 묻는 시험대다. 정치는 결코 가벼운 자리가 아니다. 그것은 지역 공동체의 기억 위에 서는 가장 무거운 약속이기 때문이다.

그래픽 뉴스



'안전자산'으로 여겨져 온 금과 은이 이란 전쟁 발발 이후 되레 매도 공세를 맞아 하락폭 기준으로 최악의 한 달을 앞두고 있다. 국제 금 선물 가격은 3월 들어 30일(현지시간)까지 13% 이상 하락했다. 이 같은 하락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국면이던 2008년 10월 이후 월간 기준 최대다. 온스당 700달러 빠진 하락폭 기준으로는 역대 최악이다. 지난 1월 말 기록했던 사상 최고치와 비교하면 하락률이 15%에 달한다. 은 선물 가격 역시 이달 들어 24% 하락해 2011년 9월 이후 최대 하락률을 기록했다. 금과 마찬가지로 역대 최대 낙폭(온스당 22달러)이다. 기준금리 인하 전망이 약화된 것이 금과 은 가격을 끌어내린 주된 요인으로 지목된다. /연합뉴스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부회장 馬讚皓 사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우)1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로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부 650-2090	지역특집부 650-2060	광고문의 650-2099	FAX
정치부 650-2030	사 진 부 650-2080	마케팅본부 650-2070	광국국 650-2016
경제부 650-2050	논 설 실 650-2006	경영지원국 650-2011	편집국 650-2017
사회부 650-2040	T V 본 부 650-2009	사 업 본 부 650-2007	업무국 650-2019
문체부 650-2065	서울지사(02) 786-9488	업 무 국 650-2020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202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가10(日)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